

스포츠동아

2014년 9월 15일 월요일 sportsdonga.com 20판



인천AG D-4



이정민 볼빅오픈 우승
시즌 상금 4억원 돌파
8면

프로야구 경기 결과 14일

| | |
|---------------|-------------|
| 삼성 3 : 12 LG | NC 3 : 5 SK |
| KIA 6 : 10 한화 | 두산 3 : 4 롯데 |



임창우(왼쪽)가 14일 문학경기장에서 열린 2014인천아시아게임 남자축구 조별리그 A조 1차전 말레이시아와의 경기에서 선제골을 넣은 뒤 환호하고 있다. 28년 만에 아시아게임 우승을 노리는 한국은 첫 경기 승리로 힘차게 출발했다. 문학 | 임민원 기자 minani84@donga.com 트위터@minani84

이광중호 첫승 출발 좋다

말레이시아에 3-0 완승...여자축구도 태국에 5-0

이광중 감독이 이끄는 남자축구 대표팀이 14일 문학경기장에서 열린 2014인천아시아게임 조별리그 A조 1차전에서 임창우(대전)-김신욱(울산)-김승태(포항)의 연속골로 말레이시아를 3-0으로 완파했다. '이광중호'는 사우디아라비아와 A조 공동선두에 올랐다. 1986년 서울대회 이후 28년 만에 아시아 게임 금메달을 노리는 남자축구대표팀은 17일 사우디(안산), 21일 라오스(화성)와 2·3차전을 치른다.

윤덕여 감독이 지휘하는 여자축구대표팀도 이날 인천 남동 아시아드러비장에서 벌어진 조별리그 A조 1차전에서 태국을 5-0으로 제압했다. 여자축구대표팀 역시 17일 인도(남동력비장), 21일 몰디브(문학)와 잇달아 맞붙는다.

●공개된 '비기'
이광중 감독은 경기 전 "첫 골이 늦어질 상황에도 대비했다"며 다양한 공격옵션을 바탕으로 한 총공세를 예고했다. 반면 말레이시아의 김민우 감독은 "망신을 피하려면 수비가 유일한 답"이라며 수세를 인정했다. 이처럼 전력상 한국의 우세가 예상됐지만, 소득 없는 시간이 길어지면 낭패를 볼 수도 있기에 빠른 득점이 필요했다. 말레이시아의 밀집수비를 허물어트린 무기는 세트피스였다. 전반 26분 오른쪽 날개 안용우(전남)가 띄운 코너킥을 오른쪽 풀백 임창우가 헤딩 선제골로 연결했다. 임창우는 상대 수비가 원톱 김신욱에 쏠리며 발생한 균열을 놓치지 않았다. "(2주간의 소집훈련 동안) 세트피스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던 이 감독의 작전이 제대로 먹었다. 빠른 득점은 안정감으로 이어졌고, 결국 후반 32분 김승태와 리턴패스를 주고받은 김신욱의 추가골에 이어 4분 뒤 김승태의 썸골이 터졌다. 김승태는 1골·1도움의 맹활약을 펼쳤다.

●첫 경기 징크스 깨다!
한국남자축구는 아시아게임에서 첫 단추를 성공적으로 꿰는데 종종 어려움을 겪곤 했다. 2010년 광저우대회에선 '홍명보호'가 북한에 패하며 불안하게 출발했고, 1998년 방콕대회에선 투르키메니스탄과의 첫 경기에서 불의의 일격을 당했다. 국제대회에선 첫 판이 전체 흐름과 사기를 좌우하기에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 면에서 '이광중호'는 첫 경기에서 귀중한 소득을 얻었다. 조직력도, 골 결정력도 우승 후보다웠다. 문학 |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트위터@yoshike3

4위 승자, 10월 대진표는 안다

오늘부터 아시안게임 브레이크...4~6위까지 2게임차 운명의 기상도는?



가을야구 마지막 티켓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4위 LG는 14일 열린 잠실 삼성전에서 12-3으로 승리하며 3연승을 달렸다. 5위 SK와 1.5게임차, 7위 롯데와 아직 3.5게임차에 불과해 4위를 안성할 수 있다. 10월 3~7일 열리는 5연전이 중요한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 LG 선수들이 14일 삼성을 꺾고 하이파이브를 나누며 승리를 자축하고 있다.

4위 LG 3연승 잠실 경기 많이 남아 유리
1.5게임차 5위 SK, 두산전 3경기 관련
두산 살인적 스케줄...롯데 대진운 불리



"4위 싸움, 10월에 보자!"
2014인천아시아게임이 앞두고 15일부터 리그가 일시 중단된다. 아시안게임 브레이크 전 마지막 경기가 열린 14일 여전히 오리무중인 4위 한 자리를 놓고 치열한 싸움을 벌이는 팀들은 1승이라도 더 챙겨 놓고 휴식에 돌입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1~3위는 이번이 없는 한 현재 순위대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4위 싸움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가을잔치 마지막 티켓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그 물음표는 9월까지 해소되지 않은 채 10월 1일 이후 재개되는 잔여경기 일정으로 넘어가게 됐다. (표 참고) 각 팀들은 아시안게임 기간에 전열을 정비해 10월에 승부수를 띄운다.

●앞서는 LG, 뒤쫓는 후보들

LG는 잠실에서 선두 삼성을 12-3으로 대파하며 휘파람을 불었다. 고비로 생각한 선두 삼성과의 2연전을 모두 잡았고, 최근 3연승을 달렸다. 시즌 118경기를 치른 가운데 55승60패2무로 4위를 굳건히 지켰다. 전날까지 5위 자리에서 1게임차로 뒤쫓던 두산은 롯데에 3-4로 달미를 잡혔다. 두산은 4위 경쟁팀들 중 가장 많은 15경기나 남아 있기 때문에 LG로선 두산과 격차를 벌려놓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LG는 마냥 웃을 수만은 없었다. 전날 6위였던 SK가 문학에서 NC를 5-3으로 물리치고 5위로 뛰어올랐기 때문이다. LG와 SK는 1.5게임차에 불과하다. 또한 7위 롯데는 이날 승리로 LG에 3.5게임차를 유지했다.

●10월 1일 이후 잔여일정 4위 운명 가늠자

10월 1일부터 17일까지 예정된 잔여경기 일정을 보면, LG는 잔여 경기 중 8경기를 잠실에서 소화하는 이점이 있다. 대신 초반인 10월 3~7일 5연전이 LG로선 승부처다. 부담스러운 넥센과 3연전을 치른 뒤 전열을 정비하고 나올 선두 삼성을 상대해야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고전한다면 다른 팀들에게 추격이나 역전을 허용할 수 있다.

●프로야구 순위(15일 현재)

| 순위 | 팀명 | 경기수 | 승 | 패 | 무 | 승률 | 경기차 |
|----|-----|-----|----|----|---|-------|------|
| 1 | 삼성 | 115 | 72 | 40 | 3 | 0.643 | 0 |
| 2 | 넥센 | 118 | 71 | 46 | 1 | 0.607 | 3.5 |
| 3 | NC | 119 | 64 | 54 | 1 | 0.542 | 11 |
| 4 | LG | 118 | 56 | 60 | 2 | 0.483 | 18 |
| 5 | SK | 118 | 55 | 62 | 1 | 0.470 | 19.5 |
| 6 | 두산 | 113 | 52 | 60 | 1 | 0.464 | 20 |
| 7 | 롯데 | 118 | 53 | 64 | 1 | 0.453 | 21.5 |
| 8 | KIA | 115 | 49 | 66 | 0 | 0.426 | 24.5 |
| 9 | 한화 | 116 | 47 | 67 | 2 | 0.412 | 26 |

역시 10경기를 남겨둔 SK는 최근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는 점이 아쉽지만, 잔여경기 스케줄은 무난한 편이다. SK로선 LG와의 시즌 일정이 끝나 승부수를 띄울 기회가 없다. 대신 13일 문학과 15~16일 잠실에서 맞붙는 SK와 두산의 3경기는 양 팀은 물론 4강 싸움 전체 판도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2면으로 이어집니다

잠실 | 이재국 기자 keystone@donga.com 트위터@keystonelee

편집 |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트위터@sadzoo

60세 넘으면 암에 더 많이 걸린다는데
아직도 암보험이 없으시다고요?
왜?

상생보험협회 심의필 제2013-2694호 (2013.12.10) (COM-2013-11-17943)

암발병률 60세 이후 암 발병률 급격하게 증가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암등록본부 2011)

60세 이상 10명중 8명 암보험 없어
(출처: 금융감독원 2009)

무배당 탄생! 고령자 전용 암보험 (갱신형)

꼭 필요한 100세 암보험

61~80세까지 가입가능! | 갱신을 통해 100세까지 암보장!

상담에서 가입까지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080-608-1010**

aiadirect.co.kr

10년 주기갱신형 상품으로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됩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보험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증하며,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구하의 모든 예금보통 대금금상환의 한도(환급금 또는 만기 시 보험금)나 사고 보험금에 기타금원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존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시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